

크리스토퍼 케인 컬렉션의 추상적 표현 특성 - 바실리 칸딘스키의 ‘내적 필연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권 하 진*

서울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조교수*

요 약

현대 예술은 20세기를 맞이하며 기존 예술과는 다른 형태,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추상이라 불리게 되는 장르는 현대 예술의 많은 부분들을 예견했고 예술을 보는 시각에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였다. 추상의 형태는 광범위하게 존재해왔으나 이론으로 정립되던 시기는 20세기 초 빌헬름 보링거와 바실리 칸딘스키와 같은 이론가들에 의해 구체화 되었고, 특히 스스로가 작가이자 교육자이기도 했던 칸딘스키의 ‘내적 필연성’ 이론은 자유 추상을 정의하는 개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내적 필연성’을 통해 살펴본 추상의 내적 특성을 ‘고유성, 긴장성, 진동성’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대 패션을 살펴보는 도구로 적용하였으며, 사례 분석 대상으로 혁신적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는 패션디자이너 크리스토퍼 케인의 여성복 컬렉션을 살펴보았다. 케인 작품은 아이쇼킹한 컬러감과 여성적 디테일의 이질적인 조합으로 디자이너의 고유성이 드러나고, 예상치 못한 또는 불안정한 디테일의 사용은 탈일상적인 이미지의 완성으로 긴장성이 나타난다. 한편, 많은 작업은 그가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때 케인 디자인의 내적 가치가 시각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진동성이 발견된다. 추상의 특성으로 살펴본 케인 컬렉션의 표현 특성으로 내면의 진실성, 경험적 독창성, 그리고 자율적 창의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디자이너의 내적 감성의 융합이 디자인의 혁신성을 유도하는 것이며, 개인의 두려움과 혼란을 시각화함으로써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불규칙한 혼합과 구성으로 고전적인 패션으로부터의 일탈을 피하고, 패션의 보편성과 개인의 특수성의 조화로운 해석이 확장된 미적 취향을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케인은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질적이고 비유기적인 구상으로 패션의 창작성을 가시화 하고 있다.

주제어 : 추상, 바실리 칸딘스키, 내적 필연성, 크리스토퍼 케인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15).

+교신저자: 권하진, hajinkwon@swu.ac.kr

접수일: 2017년 4월 7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20일

I. 서론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시대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거나 재해석되고 새로이 정립되기도 한다. 20세기 이후 현대 패션에서 논하는 미의 기준은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던, 서브컬처 또는 추(醜)라는 영역으로도 확장되며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시각의 변화는 패션 내에 많은 문화, 사회적 요인의 혼재를 허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디자인을 재구성하여 빠르게 다변하는 현대 사회의 맥락에 적응하려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21세기는 더욱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주목하게 되었고, 창조성과 더불어 독특한 자율성, 파격적인 구상성 또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디자이너의 철학과 미학적 시각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 예로, 외형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디자이너의 감각과 시각을 표현하는 작품을 창의적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내면적 미를 탐구하는 작품에도 또 다른 의미를 두게 되었다. 그 중심에 영국 세인트럴 세인트 마틴(Central Saint Martin, CSM)을 졸업한 1982년생 스코틀랜드인(Scottish) 크리스토퍼 케인(Christopher Kane)은 최근 유럽에서 관심 받는 패션디자이너들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아름다움을 패션으로 표현한다는 호평을 받는 작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S/S 컬렉션을 시작으로 매 시즌 여성복을 발표하고, 리조트웨어와 남성복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 중이다. 2007년 브리티시 패션 어워드(British Fashion Award)에서 올해의 뉴 디자이너(New Designer of the Year)로 선정된 이후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은 케인은 이미 CSM 재학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다. 졸업 패션쇼에서 이탈리아 브랜드 베르사체(Versace)를 이끄는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에 의해 발탁되어 베르사체의 두 번째 브랜드인 베르수스(Versus)로 영입 이후 그의 탁월한 디자인적 시각이 대중에게 전개

되기 시작했다. 케인의 작품을 꾸준히 관찰한 보그 『VOGUE』의 최고위 평론가 세라 모어(Sarah Mower)는 케인은 어린 시절 그가 자라온 작은 마을에서 형성된 그의 유년기 시절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형성한다고 평가한다(Mower, 2015). 또한 케인 브랜드는 디자인 철학에 대해 분위기나 감정에 의해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작되고, 자라난 환경과 교육 등의 자서전 적인 내용과 인생에 대한 단순한 관찰과정 등 그 모든 것이 혼재되어, 그에게는 현실도피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Brand Story, n.d.). 케인의 시도는 패션의 지나침 보다는 감성의 솔직함을 유도하고 구상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케인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주관적 시각, 차별화된 시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독창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현대 예술 사조 중에서도 작가의 내적 감정에 대한 표현을 중요시 다루는 추상 예술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의 추상(자유 추상)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술, 미학, 패션 관련 서적을 바탕으로 ‘추상’에 대한 연구의 틀을 만들고, 디자이너의 인터뷰와 평론가들의 평가를 분석하며, 작품 사진자료를 실증적 사례분석에 적용한다. 사례분석을 위한 자료는 보그(www.vogue.com)를 포함한 패션 전문 웹사이트와 디자이너 웹페이지(www.christopherkane.com), 그리고 패션관련 블로그에 실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케인의 첫 컬렉션이 시작된 2007년 S/S 컬렉션부터 2016년 A/W 컬렉션까지 10년간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케인의 여성복 컬렉션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그의 남성복 컬렉션은 본 연구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예술에서 칸딘스키의 ‘추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내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크리스토퍼 케인 컬렉션의 표현 특성을

추상의 내적 특성으로 분석한다. 셋째, 케인 컬렉션에 표현된 추상적 특성의 내적 의미를 분석한다.

Ⅱ. 추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추상의 개념

추상은 원시미술에서부터 아주 광범위한 영역과 지역에서 존재해 왔다. 추상미술은 세상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시각 자료로써 모양, 형태, 색채, 그리고 선을 시각적 언어로 사용한 구성(Composition)을 창작했다(Abstract art, n.d.). 1900년대에는 모더니즘의 발현으로 건축과 공예 또는 음악 분야에서 추상적 해석이 적용되면서 차츰 회화와 조각 분야도 보다 흥미로운 모습의 추상적 형태가 응용되기 시작했고, 추상미술에 대한 철학적 이론 정립을 구성하게 되는 시기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처럼, 20세기는 구상과 비구상의 변증법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다양한 회화적 실험이 풍요하게 이루어진 장이었다(Lee, 1998). 이 시기부터의 미술은 작가의 주관적 감성과 감각에 대한 표현력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이를 발판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대상의 외형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미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그 중심에 존재한 추상은 자연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구와 순수한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다(Kang & Kim, 2009). 추상은 하나의 언어로 단순화 지을 수 없었으며, 각 사조와 지역 또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차이는 크게 상이했다. 또한, 추상미술은 최소한의 형태와 색채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하는 ‘차가운 추상(요소주의)’과 직관의 감정에 의한 표현에 의지하는 ‘뜨거운 추상(자유 추상)’으로 나뉘기도 했다(Dictionary of Art, 1998). 이후 추상미술은 작가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형태나 무의식에서 생겨난

우연의 결과를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정의되는 추상표현주의로 거듭 발전되며 20세기 미술에 있어서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보려는 노력이 더해졌다(Jung & Kim, 2015).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는 형과 색 또는 원근법을 해체하는 구상과 비가시적인 것들을 시각화하는 정신적인 예술(spiritual art)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상의 원리로 이해되었다.

추상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 정립과 용어의 사용은 20세기 초기 당시까지도 이성중심주의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미와 미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빌헬름 보링거(Wilhelm Worringer, 1881-1965)의 저서 「추상과 감정이입 Abstraction and Empathy」(1908/1997)가 출간된 이후 확산되었다고 평가된다. 보링거의 이론은 감정이입 개념을 연구한 테오도 립스(Theodor Lipps, 1851-1914)와 예술의욕의 기초 개념을 구상한 보링거의 스승인 알로이스 리글(Alois Riegl, 1858-1905)에 영향을 받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그의 새로운 시각은 인간의 예술의욕(artistic volition)을 감정이입 충동과 추상충동의 두 영역으로 설명하고 이 둘을 서로 대립관계에 놓으며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감정이입은 미적 경험의 전제조건으로써 유기적인 미술에서 만족감이 요구되지만, 추상충동은 삶을 부인하는 비유기적인 것 속에서, 결정체화된 것 속에서 또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합법칙적인 **필연적 속성** 속에서 자신의 미를 발견한다(Worringer, 1908/2014, p. 4).”

이에 대해 Kim(2010)은 보링거가 두 영역 모두 의인화되어 스스로를 표현하는 욕구로서 자신의 단편화 되어진 전체에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그가 논하는 두 형태의 예술의욕이 리글이 제시한 영역에 있다고 논한다. 이는 ‘이입과 추상’의 상대적이면서도 양가적인 개념이 모두 들어 있는 것으로 심리적 잠재성, 내면의 미적욕

구가 내재한다는 것이다. 즉, 보링거는 감정이입에 근거한 예술의욕은 자연주의적인 양식을 추구하면서 자연의 모방, 사실적인 것의 재현으로 나타나는 반면, 추상충동에 의한 예술의욕은 자연의 절대적 모방이나 재현이 아닌 그것과 대립되는 또는 인간의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또는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비조화, 부조화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추상충동에서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있는, 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 순수하게 선, 형태, 색채 등으로 표현되어 질 수 있다(Kim, 2010).

보링거의 논의와 함께 추상미술의 개념을 이어간 대표적 인물로 완전추상에 도달하고자 했던 칸딘스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912년에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1912/2000)라는 논고를 통해 추상미술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이론적 뒷받침을 구성했다. 칸딘스키는 색채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를 통해 색채가 가진 내적 음향이 형성하는 색의 조화, 형태는 ‘내적 필연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inner necessity)’을 내재한다는 이론을 논의하면서, 내적 필연성의 원칙은 추상, 추상성, 또는 추상적인 것의 내적 형태의 조화로 ‘내적인 내용의 외화(外化)’라는 논의를 정립한다(Kandinsky, 1912/2000a). 칸딘스키의 추상이론은 독일 표현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독일 표현주의가 추구했던 인간정신에 대한 표현, 예술가의 마음에 대한 표현은 형상을 드러내는 범주를 초월하여 그 이후의 세계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시도였다. “독일 표현주의는 내면세계에 천착했던 예술이었던 바, 원래 초월이란 내면과 통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은 탈각되는 법이다(Roh, 2009, p. 102).”

칸딘스키는 정신의 순수관념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며 어떤 구체적인 원상의 외적 대상성을 제거하고 정신의 순수개념을 표현하려는 맥락

에 접근하므로, 그의 작품은 초월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칸딘스키는 예술가의 직관성, 자유로운 정신 또는 음악에서의 화음과 같은 내용이 외적으로 표출되며 독특한 색채와 형태가 조화를 이룬 듯 또는 아닌듯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예술의 형태, 즉 예술가의 정신이 형태화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형태와 색채의 조화는 다양한 조합으로 그만의 새로운 가치 또는 개성 있는 성향을 드러내는데, 이때 무난하게 보이는 조합 또는 엉뚱하거나 무질서한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곧 예술가가 추구하는 정신적인 내적 의미이자 내용이 이루어내는 자유 추상적 형태라 볼 수 있다. 칸딘스키는 추상적 형태가 대상의 시각화와 같은 형식주의 개념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예술가의 내적 필연성(inner necessity)이 형태를 창조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칸딘스키가 논의하는 예술가의 순수감정, 순수정신은 각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다양한 내적 감정은 유사한 것들끼리 또는 다른 성질의 것들끼리 구성을 이루며 긴장감 속에서 우연을 만들고 화음을 만들며 추상의 어떤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형성되는 구성에 대해 칸딘스키는 형태의 추상성이 자유로울수록, 그것은 더욱더 순수하고 동시에 근원적으로 울려 퍼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Kandinsky, 1912/2000a). 칸딘스키가 표현하는 자유 추상은 독일 표현주의에 이어 초월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지학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신지학(theosophy)은 그리스어로 신을 뜻하는 테오스(theos)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sophia)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신적인 지혜를 의미한다(Yun, 2012, p. 87).” 신지학이 담아내는 비물질적인 정신세계와 신비주의의 개념은 칸딘스키의 이론에 색의 울림, 색의 진동, 인간 영혼의 진동과 같은 개념을 형성했다. 때문에 그의 추상에 대한 개념은 예술가의 감정이, 인간 영혼의 울림이 형

태와 색으로 확산되어 예술가의 본질이 형성되는 내적 필연성을 또 한 번 강조하게 된다. 보링거의 추상충동에 이어 자유 추상을 추구한 칸딘스키의 내적 필연성의 이론에 근거하여 그 내적 특성으로 작가의 마음, 정신을 ‘고유성’으로, 무질서한 구성을 이루며 형태를 구현하는 과정을 ‘긴장성’으로, 그리고 울림과 떨림의 단계를 거치며 작가의 내적 감정을 전달하는 과정을 ‘진동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 칸딘스키 추상의 내적 필연성의 특성

1) 고유성

내적 필연성 또는 내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는 추상의 신비스런 근원에 대해 칸딘스키는 세 가지의 요소를 언급했다. 창조자로서 예술가의 개성적인 ‘자기의 고유성’, 시대의 아들로서 ‘예술가의 고유성(시대양식)’, 그리고 예술의 봉사자로서 예술가가 표현해야 하는 ‘예술의 고유성’이 그것이다(Kandinsky, 1912/2000a).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며,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지만, 특히 개성적인 요소와 시대양식의 요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특정 시대마다 드러나는 외적 형태가 차이가 난다. 이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의 주관적 시각, 생활, 그리고 감성의 표현이 객관적인 형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며 어떤 특정한 시대양식이 성립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세 번째 요소인 예술의 고유성은 보다 주관적인 표현 의욕이 강하게 작용되며 시공간을 초월하고 형식적 구성이나 형태에도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칸딘스키는 예술 발전의 과정은 순수하고 영원한 예술성이 개성의 요소와 시대양식의 요소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성립된다고 정리한다(Kandinsky, 1912/2000a). 이는 예술의 고유성이 그 어떤 구성에서 물리적 독립을 논하기보다는 ‘형태’가 갖는 객관적인 수

준을 넘어서서 ‘정신’의, ‘순수 인간 영혼’의 문제에 다시 도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가는 그의 내적 삶에 다시 귀 기울이게 되고,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여 순수 본질로의 환원을 수행할 때 진정한 예술의 고유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며, 내적인 필연성은 규칙을 파기하고 한계를 밀쳐낸다(Kandinsky, 1973/2000b). 추상의 고유성은 물질보다는 정신의 표현이 내적 필연성에 의해 발견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내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확장 된다. 그와 동시에 ‘존재’의 재현으로부터 ‘본질’의 재현으로 향해 나아가는 예술적 모방을 내면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Min, 2010).

2) 긴장성

추상회화를 ‘긴장(tension)’으로 정의한 바 있는 칸딘스키의 견해에는 또 다시 보링거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데, 보링거는 추상충동의 발생에 대해 외부세계에 대한 인간의 내적감정의 불안감, 혼란과 혼돈, 정신적 공포의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로부터 일어났다고 보았다(Lee, 1998). 그의 정신의 내면성을 추구하는 추상충동에 대해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역시 같은 맥락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리드는 추상충동을 상징의 체계에 의한 것이라 표현했다(as cited in Joh, 2003). 이는 유기적 원리를 거부하는 내향적인 예술의욕으로 비유기적인 특성, 불규칙한 성향이 순수 추상으로서의 방향임을 의미 한다(Joh, 2003). 삶에 대한 비유기성, 불안정성과 같은 요인은 20세기 예술에서의 추상을 지향하고 칸딘스키가 이를 내적 필연성이라는 이론으로 정당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고요함 속에 내재한 새로운 표현이나, 감정의 표출이 어떤 충돌과 분열의 과정을 거치며 비하모니적인 추상을 이룬다는 보링거의 해석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칸딘스키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조합이나 대립과 부적합성 또

는 부조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때문에 추상의 긴장은 불연속적인 존재의 표현을 통한 미메시스적인 구성을 추구하여 대상의 현실성을 버리고 끊임없이 결합과 대립을 반복하는 정신세계에 대한 표현을 작업하는 것이다.

3) 진동성

칸딘스키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성으로서의 ‘떨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지학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Roh, 2009). 현대 신지학은 19세기 말 러시아의 신지학자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Helena Petrovna Blavasky 1831-1891)로부터 그 개념이 구축되었다. 칸딘스키는 블라바츠키에 영향을 받은 독일의 신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를 통해 신지학을 적극 수용하게 되면서 그의 이론과 작품에 진동의 개념을 반영시키게 된다. 신지학에서 강조하는 정신의 문제는 실증주의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정신의 내적 인식(inner knowledge)으로의 접근을 통한 영원한 진리를 사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Kandinsky, 1973/2000b). “신지학에서는 심성의 에너지가 전기 혹은 입자의 파장처럼 작동하며 공간을 움직인다고 본다(Yun, 2012, p. 89).” 인

간의 감정도 이와 같이 에너지의 파동처럼 진동으로 전달되고 그 힘과 양상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아우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해석을 한다(Choi, 2015). 칸딘스키는 신지학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색채와 형태의 무한한 조합의 가능성과 그것의 다양한 가치를 창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내적인 음향’에 의해 ‘정신적인 실체’를 갖게 됨으로써 추상의 주관적 실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추상의 내향적 성향이라는 논의를 정립한다(Kandinsky, 1912/2000a). 칸딘스키가 그의 논의에서 사용하는 내적 울림이나 내적 음향과 같은 표현은 회화에서의 외적 형태를 결정 짓는 것이 아닌, 존재에 대한 표명이자 우주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신적인 것’의 가시화를 의미한다. 그는 스스로의 영혼의 울림에 대한 해석을 찾고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뒤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형상 또는 현상을 내적 필연성에 의해 표현되는 추상예술의 창작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추상의 내적 특성은 3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패션 사례의 분석 도구로 적용하고자 한다. 추상의 내적 특성을 <Table 1>로 간략히 요약하였다.

Table 1. 추상의 내적 특성과 성격.

추상의 내적 특성		성격
추상의 내적 필연성	고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마음, 정신의 표현 과정 • 예술의 고유성은 주관성이 강하게 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본질로의 환원 수행 단계 → 규칙과 한계의 파괴 → 예술적 모방을 내면화/심화
	긴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질서한 구성을 이루며 형태를 구현하는 과정 • 내적감정의 불안감, 혼란/혼돈, 정신적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 • 비유기적인 특성/불규칙한 성향/부조화/부적합성/불안정한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속적인 존재의 표현을 통한 미메시스적 구성 → 결합과 대립의 반복을 통한 정신세계의 새로운 추구
	진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뒤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형상/현상 • 내적인 음향에 의한 정신적인 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인 것의 가시화/주관적 실체를 완성하는 단계 • 신지학에 근거한 색채와 형태의 무한한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 가치 실현 단계

III. 케인 컬렉션의 추상적 특성과 내적 의미

케인은 2007년 S/S 컬렉션부터 2016년 A/W 컬렉션까지 정규 컬렉션 20개, 프리폴(Pre-fall) 컬렉션 4개, 그리고 리조트(Resort) 컬렉션 7개의 여성복을 진행했다. 그는 그의 친누이 타미 케인(Tammy Kane)과 함께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였고 경영을 공유한다. 2013년 구찌(GUCCI)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과 같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케링그룹(Kering Group)이 케인 브랜드의 지분 51%를 사들이며 ‘크리스토퍼 케인’ 브랜드는 보다 성장하는 기회를 획득했다. 케링그룹이 크리스토퍼 케인 브랜드에 과감한 CEO 세라 크룩(Sarah Crook)은 크리스토퍼 케인을 선택한 케링그룹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케링그룹은 패션의 혁신성을 중요시하는 그룹으로서, 케링그룹의 회장 프랑소아 앙리 피노(François-Henri Pinault)는 알려지지 않은 젊은 디자이너를 주요브랜드의 수석디자이너로 영입하는 등 논란을 불러오는 결정을 시행하는 과감한 인물이다.. 이는 어떤 체계 안에서 자유로움을 부여하는 것이다. 브랜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정의 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케링은 개인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한다(Dark, 2016).”

케인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 케링그룹과의 융합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Bombardini, 2016), 그의 창작성이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하는 지지대를 갖추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장에서는 케인 패션의 추상적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 내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추상의 내적 특성으로 살펴본 크리스토퍼 케인 컬렉션

1) 고유성

크리스토퍼 케인이 패션계에 입문한지 10년이 된 시점에서도 케인이 진행한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늘 회자되는 작품은 그의 첫 컬렉션이다. CSM MA졸업 작품의 연장선이자 패션계로의 입문 무대였던 2007년 S/S 여성복 컬렉션은 케인이 디자이너로서의 고유한 패션 정체성을 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첫 컬렉션에서 모든 작품에 사용된 ‘네온(neon)’ 컬러의 조합과 꽃 레이스(lace), 러플(ruffle), 가방에 쓰일 듯한 플라스틱 버클(plastic buckle), 그리고 본디지룩(bondage look)은 케인의 시그니처 스타일로 평가 받으며 비평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그의 첫 무대가 강렬했던 이유에 대해 평론가 모어는 케인의 독특한 감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단연코 런던 클럽에서 나오는 90년대 베르사체와 알라이아(Alaïa) 매니아들의 최고로 강렬한 조합이다. 아이쇼킹(eye-shocking)한 컬러와 전체를 뒤덮은 장식성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듯, 그의 컬렉션은 놀랍도록 새로운 에너지와 낙천주의에 부합한다(Mower, 2006).”

그의 첫 컬렉션이 그토록 강한 인상을 준 것에는 형광톤 컬러감의 형형색색 조합이 전 작품에 깔려 있기도 하지만, 실루엣의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컬렉션에 등장한 22벌의 모든 드레스가 코르셋처럼 몸의 형태를 꼭 조이고, 허리에는 플라스틱 버클이 달린 형광톤의 벨트를 착용하여 가는 허리를 더욱 강조하며, 르네상스시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레이스 러플을 부피의 축소로 충분히 작품 안에 적용하였으며, 다리 전체를 대부분 드러내는 미니 드레스 길이만을 선보인 것이 오히려 실루엣의 다양성을 보여주려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과는 반대의 행보였다(Figure 1).

패션디자인의 다양성은 실루엣의 변화로 가장 큰 차별성을 나타낸다. 거기에는 길이, 부피, 레이어링, 또는 비대칭 착장 등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Figure 1. 2007년 S/S 크리스토퍼 케인.
From Shams. (n.d.).
<http://leilashams.blogspot.kr>

있는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케인은 그런 아이디어에서 오히려 탈피하며, 쇼킹한 색채에 집중하고, 절제하고 있으나 동시에 여성미를 극대화 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케인은 첫 작품의 준비 과정에 관해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했다.

“나는 고립된 학생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니.마르지엘라(mini-Margiela)를 하길 원할 때 나는 프릴(frill)과 스판덱스(spandex) 그리고 레이스로 작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복제를 하고 싶지 않았다. 루이스 윌슨(Louise Wilson)교수에게 내 작업을 보여 주었을 때 그녀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6착장을 더 만들어보라 했다. 그리고 그해 나의 작업을 지켜보는 이들은 내가 누군가의 작품을 복제하고 있지 않으며, 내 목적이 뚜렷이 반영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의 작업은 내 안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작업이었으며, 내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였다 (Stoppard, 2016).”

케인이 설명하는 내면에 대한 깊은 고민은 이미 MA시절 작업에서부터 독창적 형태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창의적 발상, 고유한 감성의 중심을 그가 자라온 환경과 가족 그리고 그가 만난 스승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이라 설명한다.

“당연히 모든 것은 내가 함께 자란 것 또는 사람으로 귀결된다. 내가 스코틀랜드인이어서 타탄 체크 또는 킬트(물론 둘 다 사랑하지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각 컬렉션에는 특정 실루엣이 있고, 설정되는 인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코틀랜드에서의 유년기 시절에 나와 같이 학교를 다닌 다양한 캐릭터 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내 인생에 변화를 주었고 또한 훌륭한 스승들(미술 선생님 또는 CSM에서의 윌슨 교수)을 만났으로써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Wylie, 2012).”

형광색채와 레이스의 조화는 이후 컬렉션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특히 2011년 S/S 컬렉션 전반에 다시 깔리며 더욱 완성도 높은 조합을 보여주었다. ‘Princess Margaret on Acid’라는 주제를 통해 다시 탄생한 꽃 레이스 패턴과 형광색 조합은 섹시미를 넘어선 성숙한 여성성을 표현하는데, 이때 정교한 플리츠와 일본 야쿠자 갱스터 분위기의



Figure 2. 2011년 S/S 크리스토퍼 케인.
From Holt. (2013).
<http://www.fashioneditoratlarge.com>

타투(tattoo) 프린트나 아가일 체크(argyle check)의 조합까지 더하며 이질적인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Figure 2). 케인은 이에 대해 “선택하든지 아니든지, 이것이 나다(Mower, 2010)”라는 강한 신념을 드러냈다.

케인의 형광색과 레이스에 대한 집착은 2012년 리조트웨어 컬렉션에서도 재해석되는데, 바디 밀착형 풀 레이스 드레스(full laced dress)와 점프수트(jumpsuit)에 무지개 형광톤 색채의 스펙트럼이 표현되었고, 2015년 리조트 컬렉션에서는 호피무늬에 형광색을 입히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6년 S/S 컬렉션에서는 형광톤의 레이스 조각들과 함께 PVC소재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반복된 콜라주와 같은 집합을 가시화 했다(Figure 3). PVC와 레이스의 혼합은 옷 자체에서 뿐만이 아닌 신발, 가방 등의 액세서리 부분에서도 적용되며 스포티함을 더해주기도 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케인의 형광 색채감과 레이스에 대한 해석은 그만의 독특한 특색이자 개성적인 표현으로, 첫 컬렉션에서부터 파생된 그의 디자인 시각은 같은 맥락인 듯하나 그것의 반복과, 재해석 그리고 혼합과 재배열로 차별화 되어 매 시즌 다양한 이미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그의 디자인에 반영되는 형광 색채의 활용은 다른 요소들보다도 강하게 케인의 정체성, 디자이너로서의



Figure 3. 2016년 S/S 크리스토퍼 케인 1.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Christopher Kane. (2015).
<http://www.vogue.com>

고유성을 확인시킨다. 80년대의 대표적 상징인 형광톤이 더 이상 80년대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실험적이지만 새롭고 대담한 2000년대의 젊은 여성 이미지로 재해석되면서 케인의 독창성이 발현되고 있다.

2) 긴장성

패션은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거나 해체주의적인 관점 또는 반패션의 영역에서 옷을 다루었을 때 새로운 긴장감, 다음 단계로의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케인 작품에서의 긴장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자신이 존경하는 윌슨 교수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 난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는 슬픔을 겪는 과정 속에서 감정적으로 성숙의 단계를 거치며 형식을 깨고 대립과 반복 또는 재결합과 불연속적인 속성을 해석했다. ‘Crash and Repair’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2016년 S/S 컬렉션에 대한 평가는 그의 작업들이 매우 깊이 있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이었다. 『The Telegraph』의 라라 크레이크(Laura Craik) 기자는, 특히 케인의 컬렉션이 상당히 개인적인 작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2015년, 패션 쇼 3일 전이자 그의 첫 번째 런던 상점을 열던 날 어머니 크리스틴 케인(Christine Kane)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공개된 ‘Crash and Repair’ 컬렉션은 ‘파괴된 감정에서 도출된 창작물(creation



Figure 4. 2016년 S/S 크리스토퍼 케인 2.
From Spring Summer 2016. (2015a).
<https://www.christopherkane.com>



Figure 5. 2016년 S/S 크리스토퍼 케인 3.
From Spring Summer 2016. (2015b).
<https://www.christopherkane.com>



Figure 6. 2016년 S/S 크리스토퍼 케인 4.
From Spring Summer 2016. (2015c).
<https://www.christopherkane.com>



Figure 7. 2016년 A/W 크리스토퍼 케인 1.
From Autumn Winter 2016. (2016a).
<https://www.christopherkane.com>



Figure 8. 2016년 A/W 크리스토퍼 케인 2.
From Autumn Winter 2016. (2016b).
<https://www.christopherkane.com>



Figure 9. 2016년 A/W 크리스토퍼 케인 3.
From Autumn Winter 2016. (2016c).
<https://www.christopherkane.com>

coming from destruction)’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고 묘사했다(Craik, 2016). 케인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나는 컬렉션은 언제나 개인적인 창작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친누이처럼 가족과 함께 일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안에 살며 숨쉬고 있는 것이다. 다시 창의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그의 컬렉션이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했다(Craik, 2016). 평론가 모어도 케인의 작업에 대해 ‘케인의 컬렉션은 언제나 그 자신에 관한 것이다. 그가 어디서 왔으며, 당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가 반영된다’고 언급하며 케인의 2016년 S/S 컬렉션에 나타난 자동차

파손 이미지<Figure 4>, 골절된 형상 또는 뾰족하게 들쭉날쭉 잘려나간 모양<Figure 5>, 그리고 무작위로 뿌려진 듯한 스프레이 페인팅 이미지들<Figure 6>의 활용은 그와 그의 가족이 겪고 있는 감정의 혼란스러움이 패션으로 여과되었다는 해석을 한다(Mower, 2015). 그러나 혼란스러움이 전부가 아닌, 재미와 이상함 그리고 우아함을 동시에 해석하는 기지는 ‘그가 기반이 탄탄한 디자이너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Mower, 2015). 이후 2016년 A/W 컬렉션은 보다 완성도 높은 작업을 보여주었다. 2016년 A/W에 대한 평을 살펴보았다.

“케인은 대중의 취향을 시험하고 숙련된 실력과 확고한 신념을 옷을 통해 드러낸다. 2016년

A/W 컬렉션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에 대한 해독제와 같은 작품들이었다. 그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취지로 해학적인 플라스틱 방수 모자, 무분별한 장식성, 그리고 다수의 나뭇가리는 깃털과 어울리지 않는 프린트들을 조합하는 구성을 선보였다. 그의 여성들은 아름다운 호더(hoarders)였고 멋진 피짜들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 감성이 결부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상처와 치유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다(Stoppard, 2016).”

2016년 A/W 컬렉션에 반영된 여성의 모습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음을 타미 케인도 언급한 바 있다. 모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당시 플라스틱으로 만든 방수 모자를 쓰고 학교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매우 창피스러웠다’고 언급하며 가족 사생활의 한 부분을 회상하기도 했다(Mower, 2016a). <Figure 7>과 <Figure 8>의 사례는 케인 어머니가 즐겨 쓰던 플라스틱 모자를 포함하고, 패션계의 입문 이후 꾸준히 보여주었던 바디-콘(body-con) 실루엣에서 벗어나 특정 형태를 만들지 않는 불규칙적인 형태를 구현하였다. 검정 테이핑 디테일은 부드러운 바다 원단위에 부착되며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거기에 꽃 장식이 추가되며 마구잡이로 다양한 장식성이 한군데 모여 있는 듯하다. 가디건은 몸에서 흘러내리는 듯 스타일링 되고 감정의 불안감이 외화되었다. 또한, <Figure 9>에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깃털 장식성과 실루엣은 형태의 불균형 속에서 또 다른 조화로운 형태를 이루려는 디자인 시각이 엿보인다. 케인은 그가 시도하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 과정에서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재조명되어 창조되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3) 진동성

칸딘스키 추상의 진동성은 주관적 실체를 완성

함으로써 창조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축약할 수 있다. 케인의 주관적 감성, 가치, 그리고 철학적 시각을 살펴보는 일은 앞서 살펴본 두 단계, 고유성, 긴장성에 이어 그의 내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즉, 그의 주관적, 개인적 경험이 컬렉션에 적극 반영된다는 평가에 집중하여 그의 디자인 도출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많은 인터뷰에서 케인은 그의 어린 시절과 화목한 가족을 언급 한 바 있다. 그의 사업이 가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 또한 브랜드 가치가 독특하게 비춰지는 이유이다. 케인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나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어머니와 상당히 유머러스하고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많은 이모들과 함께 지냈다. 나는 한 번도 좌절감을 느낀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을 뺏아들이는 스폰지와 같았다. 나는 늘 내 손에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였고 그러한 작업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스코틀랜드에서 성장하는 것은 그런 활동성을 배우고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환경임을 배우는 것이었다(Wyllie, 2012).”

2016년 9월, ‘크리스토퍼 케인’ 브랜드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모어(Mower, 2016b)가 크리스토퍼와 타미를 공동 인터뷰 한 내용에서도 그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공유한 삶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인터뷰를 살펴보았다.

“크리스토퍼: 우리는 항상 새로움을 지향하고 어린 시절을 작업에 반영한다. 즉,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작업을 진행한다.. 우리의 작품 뒤에는 정말 많은 상황과 열정이 있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personal)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작업들 모두 아주 깊게 뿌리내린 어린 시절에 경

힘한 것들이 확산되고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우리의 작업이 자랑스럽다. 가끔은 나도 모르는 내면의 어린 아이의 감성이 도출된다.

타미: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가족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아버지는 정규직에서 일하면서도 엔지니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을 시작하며 기업가정신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청소부였고 급식 담당자로 일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어머니가 학교에서 급식 담당자로 일하면서 착용했던 깡엄체크(gingham check) 유니폼은 훌륭했다. 깡엄은 상황에 따라(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모들은 강하고 독립적이었으며, 유머러스한 보통사람들이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스코틀랜드인들의 정신력(Scottish mentality)이고 때 시즌 우리의 작업을 진행할 때도 발현된다(Mower, 2016b).”

케인 남매는 브랜드 구축의 출발점이 스코틀랜드인으로서 내재한 강한 정신력과 유머감각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하고 진실한 태도로부터 발생했음을 인정한다. 그들이 컬렉션을 대하는 자세는 남매가 경험한 어린 시절의 다양한 상황과 인물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감성과 시각의 가시화이며, 결국 그들의 내적 가치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크리스토퍼 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내 어린 시절의 풍경과 나의 가족은 브랜드 형성에 당연히 영향을 주었다. 나의 작업 안에 어린 시절 경험한 인물들의 영감이 반영 되는 사실이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일하는 방식이 서서히 스며들었다는 점이다. 나는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고, 스코틀랜드인으로서의 유머 감각 또한 나를 성숙하게 하였다(Swarbrick et al., 2017).”

케인은 진지한 태도로 패션을 대한다. 모든 시즌을 새롭게 접근하면서 유행에 끌려가지 않는 완강한 의지는 그의 창작성이 보다 강조되는 지점으로 인정받는다. 2015년 케인은 런던 메이페어(Mayfair) 부티크에서 드로잉 수업을 시도하며 그가 어린 시절부터 CSM에서까지 꾸준히 그림을 그리던 작업 방식을 꺼내어 디자인팀과 그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누드 드로잉을 위해 모델이 섭외되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은 2015년 A/W 컬렉션에 반영되었다. ‘Lover’s Lace’라는 주제로 진행된 컬렉션은 누드 드로잉 모티프를 패션에 적용하였고, 누드의 성적인 이미지보다 관능적인 요소가 활용되었다. 다양한 텍스처로 표현된 누드 드로잉은 벨벳 드레스가 되고<Figure 10>, 검정 선으로 그려진 그림은 다시 여러 겹의 반투명 소재위에 자수로 장식되어 한 벌의 드레스가 되었으며<Figure 11>, 케인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화려한 꽃무늬 레이스 소재가 누드 드로잉처럼 겹쳐지며 몸 위의 또 다른 몸들로 구성된 드레스로 변신하기도 했다(Figure 12). 드로잉에서부터 시작된 작품에 대해 케인은 ‘그것은 패션과 인생 속에서의 사랑과 예술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의 반영’이라고 설명한다(Menkes, 2015).

한편, 케인은 그에게 영감을 주는 ‘강한 여성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나는 가족 구성원 중 여성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타미는 강하고 어머니는 더 강했다. 그들은 여성은 그 누구도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주었고, 카멜레온 같이 어떤 역할도 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나는 강한 여성을 좋아한다. 때문에 강한 여성은 괴팍하고 잘난 척하고 또는 미친 사람처럼 평가하는 것이 안타깝다(Dacre, 2015).”

케인이 매 컬렉션마다 차별화 된 여성의 이미



Figure 10.
2015년 A/W
크리스토퍼 케인 1. From Autumn Winter 2015. (2015a).
<https://www.christopherherkane.com>



Figure 11.
2015년 A/W
크리스토퍼 케인 2. From Autumn Winter 2015. (2015b).
<https://www.christopherherkane.com>



Figure 12.
2015년 A/W
크리스토퍼 케인 3. From Autumn Winter 2015. (2015c).
<https://www.christopherherkane.com>



Figure 13.
2012년 S/S
크리스토퍼 케인. From Spring Summer 2012. (2011).
<https://www.christopherherkane.com>



Figure 14.
2013년 A/W
크리스토퍼 케인. From Autumn Winter 2013. (2013a).
<https://www.christopherherkane.com>



Figure 15.
2014년 S/S
크리스토퍼 케인. From Spring Summer 2014. (2013).
<https://www.christopherherkane.com>

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것 또한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준 다양한 여성상에 대한 아이디어 때문이기도 하다. 어머니와 누이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이모들의 개성 강한 여성상은 그가 여성 컬렉션을 진행하며 디자인의 신념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다.

케인은 그가 구상하는 여성 이미지에 대한 꾸준한 표현 중 하나로 꽃문양을 들며, 그에게 꽃문양은 상당히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요소임을 언급했다(Bombardini, 2016). 거의 모든 컬렉션에 등장하는 꽃문양은 레이스나 헝광톤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반복된다. 쉬폰(chiffon)과 오간자 소재에 입체적 자수나 다양한 플라스틱 꽃 모티프를 엮을 가해 부착한다거나<Figure 13>, 가죽과 니트 소재 위에 입체적이고 다소 과해보이는 꽃 자수를 복식 전체로 확산시키는 작업은 꽃이라는 모티프에 대한 그의 집착(obsession)을 드러낸다. 프린트 기법으로도 다양하게 꽃을 표현하기도 하고, <Figure 14>와 같이 입체적인 표현을 위해 깃털로 꽃 형태를 만들어 니트와 아주 얇은 쉬폰(chiffon) 위에 부착하여 소재의 이질감을 독특하게 해석하는 한편, 2-D의 그래픽적인 전개로 팝(pop)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과 기법

을 적용하여 꽃에 대한 영감을 풀어낸다. 때로는 꽃의 크기가 확대되며, 3-D 와이어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꽃처럼 표현하기도 했으며, 반짝거리는 시퀀(sequin)과 자수 실의 어플리케(applique)로 제작된 'FLOWER'라는 글씨를 꽃 모티프와 함께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케인에게 꽃이 중요한 디자인 요소임을 강조하는 듯하다(Figure 15). 특히 2014년 S/S 컬렉션은 식물의 생식과정과 광합성에 대한 스토리가 컬렉션 전반에 썩어지며 꽃 모티프가 단순히 패턴으로 응용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며, 생명 창조에 대한 개념을 여성성의 중요한 키워드로 강조하여 여성패션에 적용한다.

요약하자면, 케인 패션의 진동성은 그가 자라온 환경, 가족 간의 관계로부터 형성된 여성 이미지와 여성성에 대한 해석으로 비추어진다. 그의 작업은 가족으로부터 꾸준히 영향을 받은 다양한 요인들이 패션으로 전달되고 동시에 현실에서 그가 착안하는 독창적인 해석이 부여됨으로써 차별화된 결과물로 귀결되고 있다.

2. 케인 작품의 내적 의미 분석

현대 패션은 다양성과 재해석, 그리고 새로운 융합의 구성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다. 디자이너들은 바쁜 패션 시스템 속에서 각자 고유의 정체성과 디자인 시각을 일궈내는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스스로의 색이 퇴색되는 경우도 있다. 케인은 이제 10년의 경력을 쌓은, 아직도 젊지만, 그가 런던 패션 위크(London Fashion Week)에서 150년 전통의 메가 패션 브랜드(mega fashion brand) 버버리(Burberry)와 함께 주목받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의 디자이너로서의 가능성을 패션계가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Mower, 2012). 케인 디자인의 콘셉트와 작업에 대한 설명을 빌려오자면 다음과 같다.

“크리스토퍼 케인의 디자인은... 숙련된 기술적인 스킬로 결과물을 끌어낸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을 비상한 형으로 전환시키고, 전통과 현대를, 영원함과 순간을 엮어내고 전복된 체제와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어 컬렉션에 반영된다(Brand Story, n.d.).”

“나는 유행을 따르고 싶지 않다... 나는 항상 내 열정과 창의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은 항상 열정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나의 진실성이 내 창작물에 부여되는 것이다... 나의 작업은 매우 개인적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방식이다(Kelsey, 2016).”

케인 디자인은 색채, 실루엣, 디테일, 패턴 등의 사용에 있어서 그의 의지와 신념이 작용한다. 그의 디자인에서 관찰되는 여러 요인들은 디자인의 변환(changeable process) 그 중심에는 디자이너 고유의 감성이 존재함으로써 끊임없이 그의 감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형태의 구성은 창조자의 심리적, 내적 관념이 외부로 드러나며 완성된다고 분석하는 추상의 개념

에 따라 설명 될 수 있는데, 이는 곧 자기 탐구적인 자세와 새로운 매체의 발전적인 연구 방식을 취하는 케인의 디자인에 대한 “인간은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한다(Kandinsky & Marc, 1912/2007, p. 57)”는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술가는 형태에 내재된 어떤 ‘울림’을 표현하려고 하고, 감상자에게는 그 ‘울림’이 전달되는 것이다(Choi, 2015). 케인의 패션을 통해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저항적이면서도 수용적이다. 그는 여성성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디자이너 고유 감성에 대한 본질을 융합하며 내적 감성을 표현하는 작업을 충실히, 신중하게 엮어가고 있다.

패션디자이너의 미적 욕구에는 자아실현과 새로운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의지가 담기게 된다. 시대적 정신과 사회·문화적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디자이너 개인의 철학적 사고와 정체성에 대한 시각을 패션 내에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특수성과 고유성의 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케인은 그의 디자인에 대해 ‘끊임 없는 혁신성, 저항적인 여성성, 그리고 비범한 스킬의 고차원적인 창의성과 재미를 추구하는 전개’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힌다(Brand Story, n.d.). 그의 여성복 컬렉션에서 표현되는 감성은 실험적이면서 동시에 우아한 여성상을 제시한다. 특정 유행 요소에 구애받지 않는 구성으로 주목받는 그에게는 패션이 최고의 놀이처럼 다루어지고, 대체할 수 없는 세련됨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의 패션은 미의 보편성에 대한 재해석이 꾸준히 이루어지며 나타난다. 바다-쿤 형태는 여성 몸의 직접적인 해석이면서도 드러냄으로 인한 여성다움의 관념적 사고 또는 보편성에 대한 저항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검정 테이프의 활용으로 탄생한 작품에서는 소녀다운 이미지에 망가뜨림과 부조화를 시도하여 언제까지나 어린 소녀가 아닐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비치기도 한다. 짧은 드레스와 레이스

Table 2. 추상의 특성으로 살펴본 케인 작품의 표현 특성과 내적 의미.

추상의 특성	표현 특성	내적 의미
고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색채의 자유로운 활용-케인의 시그니처 컬러감으로 인식됨 · 프리, 스파텍스, 레이스의 반복적인 활용-디자이너 취향의 적극적 반영 · 개인의 한계에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의 정신적 가치 실현 · 불규칙한 혼합과 구성으로 고전적인 패션으로부터 이탈 · 패션의 보편성과 개인의 특수성의 조화로운 해석 ·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된 미적 취향 구현 · 주관적 범주에서 객관적 범주로의 발전적인 표현을 통해 다음 단계로 발전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내면의 진실성 경험적 독창성 자율적 창의성</p>
긴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경험(특히 스승과 어머니의 죽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불규칙성과 불균형 · 내적 감정의 불안을 불연속적인 외형으로 표현 	
진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년 시절의 환경과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으로 형성된 여성 이미지 구현 · 스코틀랜드인의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강인함과 부드러움, 유머러스한 성향 반영 	

소재의 활용은 몸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당하게 하였으며, 관념적 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파괴이기보다 비판의 시각을 갖고 경계를 해체하는 것이다. 또한 내재한 감성의 표출에 충실해질 때 창작자의 개성은 초월적 감각으로의 전이가 가능하다. 즉, 크리스토퍼 케인은 내면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그의 미적 취향과 미에 대한 차별화 된 시각을 완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패션 브랜드로서의 경험적 독창성과 자율적 창의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추상의 내적 특성으로 살펴본 케인 컬렉션의 표현 특성과 내적 의미를 <Table 2>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IV. 결론

추상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 인간의 예술의 욕을 논의했던 보링거에 이어 작가이자 이론가 그리고 교육자였던 칸딘스키에 의해 이론으로 정립되면서 현대 미술에 중요한 정점을 만들었다. 칸딘스키는 추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내적 필연성’의 개념을 확정하며 형식은 내적 내용, 감성의 외적 표현임으로 결국 형식은 내적 내용과 동일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추상에 대한 이러한 관점

은 형식을 통해 내용(정신, 내적 울림)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는 해석했다 (Kandinsky & Marc, 1912/2007). 한편, 현대 패션디자이너는 동시대적인 발상과 함께 새로운 미적 시각을 제시하며 대중에게 접근한다.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내적 감성이 어떤 방향을 시각화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미학 및 철학적 시각이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작업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디자이너의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예술에서 추상 예술가 칸딘스키의 내적 필연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이너 크리스토퍼 케인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케인은 패션에 대한 독창적 시각을 구축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디자이너로 보인다. 케인의 작품에서 유추되는 추상적 표현은 칸딘스키와 같은 추상미술을 논하는 작가들이 언급하는 내적 필연성의 논의로 분석할 수 있었는데,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고유성, 내적 감정의 혼란의 표현으로 인한 긴장성, 그리고 자유로운 구상성으로 유기적인 변화가 가능한 진동성의 특성으로 살필 수 있다.

크리스토퍼 케인의 작업은 개인의 성장과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감수성과 내면의 열정에 집중하여 작가의 정신과 그 내적 울림이 자유롭고 고정적이지 않은 형태로 구현되는 예술 의지와 닮아

있다. 그는 무한한 창조가 가능한 현 시대에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시각을 표현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미학을 꾸준히 시도한다. 케인의 패션에 대한 접근 방식은 패션의 상업적, 보편적 관점에 익숙하지 않음을 더하며 이질적이면서도 익숙하고,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조합의 시각화를 구성한다. 그가 표현하는 여성 패션의 다양한 모습은 디자이너 고유의 내면적 진실성과 경험적 독창성 그리고 자율적 창의성의 조화로 케인만의 디자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추상에 대한 탐구로 시작되어 패션에서도 그 사례를 보고자 시도되었다. 21세기 이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현대 예술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은 패션디자인의 주관적 창작성을 분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이후 보다 확장된 사례를 통해 창작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Reference

Abstract art. (n.d.). *WIKIPEDIA*. Retrieved January 10, 2016, from https://en.wikipedia.org/wiki/Abstract_art#cite_note-1

Autumn Winter 2013. (2013a).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autumn-winter-2013>

Autumn Winter 2015. (2015a).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autumn-winter-2015>

Autumn Winter 2015. (2015b).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autumn-winter-2015>

Autumn Winter 2015. (2015c).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autumn-winter-2015>

Autumn Winter 2016. (2016a).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autumn-winter-2016>

Autumn Winter 2016. (2016b).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autumn-winter-2016>

Autumn Winter 2016. (2016c).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autumn-winter-2016>

Bombardini, S. (2016, May 15). Christopher Kane: “Sometimes things grow on you, like a work of art”. *BURO24/7*. Retrieved October 20, 2016, from <http://www.buro247.my/fashion/insiders/an-interview-with-christopher-kane.html>

Brand Story. (n.d.).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brand-story>

Choi, B. G. (2015). Eastern spiritualism in Kandinsky’s art theory.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45(-), 5-19. doi:10.17949/jneac.1.45.2015.12.001

Craik, L. (2016, March 5). Christopher Kane interview: how London’s young gun went global. *The Telegraph*. Retrieved April 20, 2016, from <http://www.telegraph.co.uk/fashion/london-fashion-week/christopher-kane-interview-how-london-young-gun-went-global>

Dacre, K. (2015, March 24). Christopher Kane: ‘I find it frustrating when women are seen as bitchy or bossy or crazy just because they’re strong.’ *EveningStandard*. Retrieved April 20, 2016, from <http://www.standard.co.uk/fashion/christopher-kane-i-find-it-frustrating-when-women-are-seen-as-bitchy-or-bossy-or-crazy-just-because-10129652.html>

Dark, T. (2016, July). How to Make It in High Fashion-Don’t Give the People What They Want. *THE STAND*. Retrieved August 20, 2016, from <https://thestand.investec.co.uk/make-high-fashion-dont-give-people-want>

Dictionary of art (1th ed.). (1998). Seoul: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Holt, B. (2013, January 16). THE DEFINITIVE CHRISTOPHER KANE TIMELINE. *FASHION EDITOR AT LARG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www.fashioneditoratlarge.com/2013/01/the-definitive-christopher-kane-timeline>

Joh, Y. H. (2003). *예술철학* [Philosophy of art]. Seoul: Misul Munhwa.

Jung, J. E., & Kim, H. K. (2015). A study on fashion design with application of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 Focused on Franz Kline’s paint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4), 1-15. doi:10.18652/2015.15.4.1

Kandinsky, W. (2000a).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Concerning the spiritual in art] (Kwon, Y. P., Trans.). Paju: Youlhwad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12)

Kandinsky, W. (2000b). *점·선·면·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Point and line to plane] (Cha, B. H., Trans.). Paju: Youlhwad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Kandinsky, W., & Marc, F. (2007). *청기사: 20세기 예술혁명의 선인* [(The) Blue rider: The documents of 20th-century art] (Bae, J. H., Trans.). Paju: Youlhwad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12)

Kang, H. M., & Kim, H. K. (2009). A study of fashion

- design with the motif of modern abstract painting.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9(1), 61-75.
- Kelsey, C. (2016, September 9). CHRISTOPHER KANE. *Interview*. Retrieved October 20, 2016, from http://www.interviewmagazine.com/fashion/christopher-kane-1/#_
- Kim, H. S. (2010). 보링거의 추상과 감정이입: 양식 심리학의 조건 [Abstract and empathy from Wilhelm Worringer: Conditions of the style-psychology].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34), 39-59.
- Lee, J. Y. (1998). Abstract art and mimesi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Science of Art*, 8(-), 101-118.
- Menkes, S. (2015, February 24). Christopher Kane: Drawings of Desire. *VOGUE PARIS*. Retrieved January 20, 2016, from <http://en.vogue.fr/suzy-menkes/suzy-menkes-column/articles/fwah2015-la-chronique-de-suzy-menkes-christopher-kane-drawings-of-desire/24271>
- Min, J. S. (2010). Aesthetic fundamentals of abstract art.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34), 5-29.
- Mower, S. (2006, September 20). SPRING 2007 READY-TO-WEAR Christopher Kane. *VOGU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7-ready-to-wear/christopher-kane>
- Mower, S. (2010, October 16). CHRISTOPHER KANE SPRING 2011. *VOGU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week-review/863500/christopher-kane-spring-2011>
- Mower, S. (2012, February 20). Christopher Kane Fall 2012. *VOGUE*. Retrieved March 25,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week-review/862745/christopher-kane-fall-2012>
- Mower, S. (2015, September 21). SPRING 2016 READY-TO-WEAR Christopher Kane. *VOGUE*. Retrieved March 25,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christopher-kane>
- Mower, S. (2016a, February 23). FALL 2016 READY-TO-WEAR Christopher Kane. *VOGUE*. Retrieved March 25,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christopher-kane>
- Mower, S. (2016b, September 19). Christopher Kane Shares a Decades's Worth of Fashion Moments on the Eve of an Anniversary Show. *VOGUE*. Retrieved October 25, 2016, from <http://www.vogue.com/article/christopher-kane-interview>
- Roh, Y. D. (2009). The aesthetics understanding on the abstract painting: Comparing W. Kandinsky with P. Mondria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0(5), 95-103.
- Shams, L. (n.d.). RUNWAY OF THE DAY: CHRISTOPHER KANE. *LEILASHAMS*.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leilashams.blogspot.kr/2011/09/runway-of-day-christopher-kane.html>
- Spring Summer 2012. (2011).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spring-summer-2012>
- Spring Summer 2014. (2013).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spring-summer-2014>
- SPRING 2016 READY-TO-WEAR Christopher Kane. (2015). *VOGU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christopher-kane/slideshow/beauty#42>
- Spring Summer 2016. (2015a).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spring-summer-2016>
- Spring Summer 2016. (2015b).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spring-summer-2016>
- Spring Summer 2016. (2015c). *CHRISTOPHER KANE*. Retrieved February 20, 2016, from <https://www.christopherkane.com/kr/collection/spring-summer-2016>
- Stoppard, L. (2016). A Man of His Word. *BON*. Retrieved October 30, 2016, from <https://bon.se/magazine/bon-71/a-man-of-his-word>
- Swarbrick, S., Jamieson, T., & Earaker, S. (2017, March 18). From models to designers, muses and tastemakers who will be OUR number one?. *The Herald*. Retrieved March 30, 2017, from http://www.heraldscotland.com/life_style/15165588.Who_are_Scotland_s_fashion_50_
- Worringer, W. (2014). *Abstraction and empathy: A contribution to the psychology of style* (Bullock, M., Trans.). Chicago: Elephant Paperbacks. (Original work published 1908)
- Wyllie, A. (2012, December 16). Interview: Christopher Kane on how his manner, drive and inspiration were fashioned in Lanarkshire. *THE SCOTSMAN*. Retrieved March 10, 2016, from <http://www.scotsman.com/lifestyle/culture/fashion/interview-christopher-kane-on-how-his-manner-drive-and-inspiration-were-fashioned-in-lanarkshire-1-2694687>
- Yun, H. K. (2012). The aesthetic of the spirit as a religious concept in Kandinsky's art. *Art History and Visual Culture*, 11(-), 80-105.

Abstract Expression in Christopher Kane's Collection **- Focused on Wassily Kandinsky's 'the Principle of Inner Necessity' -**

Kwon, Ha Ji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arketing,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Upon welcoming the twentieth century, the modern art started to expand and develop further from the existing art forms and concepts. Especially, abstract genre foresaw artistic varieties of modern art and suggested new concepts for visual art. The concept of the abstract form existed comprehensively throughout the years in art history until early twentieth century when Wilhelm Worringer and Wassily Kandinsky materialized and theorized it's concept. Particularly when Kandinsky, who was an art theorist and artist himself, conceptualized 'inner necessity' found in abstract forms, it started to take a shape. This article discussed Kandinsky's 'inner necessity' to analyze Christopher Kane's women's collections and examine abstraction in modern fashion based on three characteristics as theoretical apparatuses such as 'inner need, tension, and vibration'. Kane emphasizes heterogeneous mix of eye-shocking colors and feminine details to create the inner need. Insecure details represent the tension to show non-daily images with new and traditional materials in fuse. Kane's personal experience like his childhood and environment influenced his work that creates the vibration. Within thes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abstract quality, the aesthetics of inner integrity, experienced originality, and autonomic creativity are emphasized in Kane's collections. In general Kane's concept visualizes new design innovations based on fusion of inner feelings that challenges fear and confusion in his personal experiences. Kane also creates irregular embracing to deviate from traditional fashion by re-materializing universality in fashion and specificity in personal characteristics of harmonic interpretations of the aesthetic preferences. Kane attempts to transform the design from the ordinary into the extraordinary by visualizing heterogeneous thoughts and non-organic designs by in fusing creativity in fashion.

Key words : abstract, Wassily Kandinsky, inner necessity, Christopher Kane